

- **주요 뉴스:**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당분간 탈동조화 현상 지속될 전망
 - 미국 민주당 의원들,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연준에 강력한 통화긴축을 요구
 - 영국 10월 성장률, 전월 대비 큰 폭 둔화. 금리인상 관측 약화
 - 노무라, 내년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네이션에 직면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제성장 지속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3.8%], 달러화 보합[-0.02%], 금리 상승[+1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정점 근접 기대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 지수는 오미크론 관련 우려 완화 등으로 2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포지션 조정 등으로 소폭 하락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 엔화는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소비자물가 급등 등이 영향
 독일은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4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0.1% 상승, 한국 CDS 보합

		12/10일	12/3일	전주말대비			12/10일	12/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712.0	4,538.4	3.82%	국채 금리 10y	미국	1.48%	1.34%	14bp
	유럽	475.56	462.77	2.76%		독일	-0.35%	-0.39%	4bp
	중국	3,666.3	3,607.4	1.63%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8,438	28,030	1.46%		중국	44bp	53bp	-9bp
	한국	3,010.2	2,968.3	1.41%	위험 지표	EMBI+	383	405	-22bp
환율	달러지수	96.10	96.12	-0.02%		VIX	18.69	30.67	-39.06%
	유로화	1.1313	1.1315	-0.02%		WTI유	71.67	66.26	8.16%
	엔화	113.44	112.80	-0.56%	원자재	구리	428.3	426.7	0.39%
	위안화	6.3700	6.3765	0.10%		금	1,782.8	1,783.3	-0.03%
	원화	1,181.3	1,180.1	-0.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당분간 탈동조화 현상 지속될 전망

- 이번 주 연준(14~15일), ECB(16일), 일본은행(17일), 영란은행(16일) 등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 이들의 통화정책은 일정 기간 국가별 인플레이션 상황, 경제성장 전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전보다 신속한 테이퍼링 의지를 밝힐 전망. 일부에서는 내년 금리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도 있을 것으로 추정
- ECB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성장 모멘텀도 매우 강력한 수준은 아니어서 현행 완화기조 이어갈 가능성. 일본은행도 자국 내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완화정책 지속할 것으로 판단
- 영란은행은 최근 성장둔화 등을 반영하여 금리인상에 신중한 자세 취할 소지. 다만 BofA는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경로는 상이해도, 대부분 내년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내년 상반기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민주당 의원들,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연준에 강력한 통화긴축을 요구

- 민주당의 제이크 어친클로스 의원은 테이퍼링이 당장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쉐로드 브라운 의원도 경제는 노동자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중간선거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

■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위기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인 위험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언급. 인플레이션 완화가 신속하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70.4로 전월(67.4) 대비 상승

-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 전망 등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가 이번 결과의 주요 원인. 미시건대학은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 오류 혹은 경제 상황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

■ 독일 총리, 다음 위기를 대비한 재정 준비가 필요

- 솔츠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신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며, 다음 위기를 대비한 재정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언급. 한편 린트너 신임 재무장관은 재정규칙을 존중하고 공공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

■ 영국 10월 성장률, 전월 대비 큰 폭 둔화. 금리인상 관측 약화

- 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달 전월 대비 성장률은 0.1%로 9월의 0.6%에서 대폭 하락. 시장에서는 연말에도 코로나 19에 따른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수낙 재무장관은 경기회복에 장애물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 일본 총리, 반도체 부족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경제 위협 요인

-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대내외 영향,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소비세의 경우 현 상황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첨언

■ 노무라, 내년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네이션에 직면할 가능성

- 취약한 수요, 경기부양책 축소, 실질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스태그네이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 다만 미국은 양호한 수요 등으로 골디락스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S&P, 터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과 리라화의 약세 등을 거론. 대규모 부채와 은행 시스템 부실화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다만 국가 신용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12/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재정수지(억달러): -1910, 10월(-1950), 예상치(-)
- 중국 11월 M2(전년동월비): 8.5%, 10월(8.7%), 예상치(8.6%)

■ 주요 경제 이벤트(12/13 현지시각 기준)

- 영국 금융안정보고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대규모 부채,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장애물로 작용 - 블룸버그

(Massive U.S. Debts Could 'Trap' Powell as Fed Fights Inflation)

-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 등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기업부채는 2020년 이후 큰 폭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취하면, 신용감소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
- 하버드 대학의 Jeremy Stein은 연준이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평가하고, 고물가 장기화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면,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 예일대학의 William English는 연준이 통화긴축을 다소 천천히 시행할 수 있다고 평가

■ 중국의 규제 개혁, 정부 영향력 강화가 목적.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 초래 가능성 - WSI

(What's Behind China's Regulatory Storm)

- 올해 중국 정부는 기술 기업, 인터넷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엄격한 규제를 단행. 중국 정부의 통제 범위 확대는 미·중 관계 악화 및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내부 결속을 다지는 큰 그림의 일부분
-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정책수단 없이 국가 지도자의 일방적 목표에 의거한 비효율적 결정. 오히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목표인 기술 자립, 주택시장 위험 완화, 탄소 중립 등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극도로 정치화된 중국 당국의 국가적 목표 확대와 효과적인 정책 도구 부족은 경제에 장기적 피해를 줄 가능성. 아울러 투자자는 상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

■ 미국의 고물가와 마이너스 실질금리, 통화정책 변경에 정당성 부여 - WSI

(Inflation Surge Pushes U.S. Real Interest Rates Into More Deeply Negative Territory)

■ OPEC+, 오미크론 등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선부른 대응을 자제할 필요 - 블룸버그

(Doing Nothing Is the Best Oil Producers Can Do Right Now)

■ EU의 높은 탄소가격, 탈탄소화 기술 및 청정에너지 경제성 제고에 기여 - Financial Times

(Record EU carbon price boosts clean fuel economic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